

# Wordsworth의 <Lucy Poems>를 읽는 한 가지 방법

—〈없음〉으로서의 〈있음〉과 〈있음/없음〉으로서의 〈죽음〉—

李 廷 鏞

(영문과 조교수)

## I. 머릿말

대개의 시인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자신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가 있게 마련이고, 이 주제에 대한 시를 여러 번 또는 그들의 주요 작품의 여러 곳에서 자주 쓰게 마련이다. 워즈워쓰도 물론 이러한 시인들과 예외가 아니어서, 그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들을 그의 중요한 시에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 불멸을 깨닫는 노래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sup>1)</sup> (간단히 〈Intimations Ode〉 또는 〈영생 불멸의 노래〉라고도 부른다)에서 워즈워쓰는 인간의 죽음으로 생기는 삶의 허무함을 딛고 일어나 영생불멸로 이어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다. 이 시는 그러나 장시가 아니어서,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서시(序詩) The Prelude〉에서 더욱 발전되고 심화되어 나타난다. 시인들이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은 그러나 몇편의 길고 짧은 시로 담아 낸다고 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모두 가셔지는 것은 아니다. 워즈워쓰의 경우에도 위에 든 〈영생 불멸의 노래〉나 〈서시〉 등과 같은 시를 씀으로써 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커다란 주제들 중의 하나를 그의 마음 속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워즈워쓰의 다섯 편의 〈루씨 시편들〉은 워즈워쓰와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데에 아주 흥미있는 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 다섯 편의 〈루씨 시편들〉이 워즈워쓰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흥미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대답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이 글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우선 중요한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는게 좋겠다.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워즈워쓰는 어떤 한가지 주제에 관하여 여러 편의 시를 쓴 적은 없다(물론 〈서시〉에서는 그의 중요한 관심사인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을

1) 이 글에 나오는 워즈워쓰의 시들은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Wordsworth: Poetical Works*, ed., Thomas Hutchinson; rev. ed., Ernest de Selincourt (London: Oxford Univ. Press, 1936)에서 인용한다. 그리고 이책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주로 밝히지 않고 본문에 그대로 적는다.

주제로 한 시를 쓴 바는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루씨 시편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 키츠 John Keats의 다섯 편의 송시들(頌詩, Odes)과 비견될 수도 있다. 키츠가 그의 위대한 송시들을 쓰게 된 계기는 의식적인 시작(詩作)으로서의 집필이 아니었다. 키츠가 어떤 시를 의식적으로 쓰는 틈틈이에 그의 의식 깊숙한 곳에 깔려 있어서 다른 시로는 걸러질 수 없는 주제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표면으로 분출되어 나타난 것의 총화(總和)가 곧 그의 다섯 편의 위대한 송시가 된 셈이다. 그러므로 그가 의식적으로 이 송시들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평자들은 이 시편들 속에 담겨 있는 키츠의 관심과 주제를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워즈워스의 경우에도 그의 <루씨 시편들>을 키츠의 <송시들>과 견줄만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다섯편의 <루씨 시편들> 중에서 <나는 낯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떠돌아 다녔네 I travelled among unknown men>(이후로는 <나는 떠돌아 다녔네>로 생략하여 제목을 쓰겠음)라는 시만을 제외하고는 그와 도로씨 Dorothy가 독일의 고졸러 Goslar 지방에서 타향살이를 할 때인 1798년부터 1799년 사이에 쓴 시편들이다. 이 당시 워즈워스와 그의 여동생은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에서 배고프고 추위에 떨며 외롭고 궁색한 생활을 영위하던 시절이었다. 이 때에 쓰여진 <루씨 시편들>은 그가 <영생 불멸의 노래>에서(물론 다른 뜻으로 쓴 것이긴 했지만) “꼭 알맞은 때에 깊이 간직했던 생각을 표현하게 되니 가슴이 후련하다 A timely utterance gave that thought relief”(스물 넷째줄)고 한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시편들이다.

<루씨 시편들>에는 <잠이 나의 영혼을 감쌌네 A Slumber Did My Spirit Seal>라는 시편을 빼고는 모두 루씨 Lucy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물론 <잠이……>라는 시에는 루씨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에 나타나는 여자 주인공이 루씨라는 것은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루씨 시편들>에는 모두 루씨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루씨가 누구인지, 즉 실존했었던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연구가 있어 왔으나, 어느 누구도 루씨가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긍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sup>2)</sup> 그러므로 루씨가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순전히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미궁으로 남아있다. H.M. Margoliouth의 가설이 지금까지는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진다.<sup>3)</sup> <루씨 시편들>에 나오는 루씨는 워즈워스의 부인 메어리 헛친슨 Mary Hutchinson과 코올리지 Colridge가 한 때 사랑했으나 결혼하지 못한 새어라 헛친슨 Sara Hutchinson의 여동생인 마아가레트(페기) 헛친슨 Margaret(Peggy) Hutchinson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

2) 이 것에 관해서는 H.W. Garrod, *The Profession of Poetry* (1929), "Wordsworth's Lucy," pp. 78-92와 Herbert Hartman, "Wordsworth's 'Lucy' Poems: Notes and Marginalia",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XLIX (1934), pp. 134-142를 볼 것.

3) H. M. Margoliouth, *Wordsworth and Coleridge, 1795~1834* (Home Univ. Libr.: Oxford Univ. Press, 1953), pp. 52-8.

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도 많은 그럴듯한 가설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실제의 루씨가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루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누구를 모델로 한 것이냐는 논쟁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시편들 자체이다.

<루씨 시편들>은 워즈워쓰의 시를 이해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시들은 연애시들 love poems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워즈워쓰의 <루씨시편들>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연애시들이 아니다. 이 시편들에 나오는 화자는 루씨에게 자신의 애끓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작사랑 때문에 애가 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루씨는 사랑을 알 정도로 성숙한 처녀가 아니고, 단지 어린 소녀일 뿐이다. <잠이……>에 이르면 (아니, 그전에도 이미) 우리는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면 이 시편들 속의 화자는 단지 죽어 있는 루씨를 기억 속에서만 재생하고 부활시켜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루씨 시편들은 화자(또는 워즈워쓰라고 해도 좋다)가 죽은 루씨를 기억하기 위하여 써놓은 묘비명(墓碑銘, epitaph)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sup>4)</sup>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루씨 시편들>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루씨는 단지 우리의 생각과 워즈워쓰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해 있을 뿐,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 <없음>으로서의 있음 presence as absence> 일 뿐이 아닐까? 단지 그녀는 <있음>의 흔적 trace인 <없음> 속에서만 그녀의 존재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닌가?<sup>5)</sup> 그녀는 단지 공허한 메아리 echo와 이 메아리의 되풀이 repetition 속에서만 살아 있는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이름에 불과한 것인가?<sup>6)</sup> 그녀는 일회적인 삶이 끝난 후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죽음 속으로 사라져 간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머리에 새기면서, <루씨 시편들>을 한편씩 살펴보기로 하자.

## II. 본 론

워즈워쓰의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그의 시에는 메아리echoing와 반복 repetition이 많다는 점이다.<sup>7)</sup> <루씨 시편들>에서도 이러한 그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들은 서로 서로에 대한 논평이거나 언급일 수도 있으며, 또한 루

4) Frances Ferguson, *Wordsworth: Language as Counter-Spirit* (Yale Univ. Press, 1977), p.176.

5) "Derrida's *Trace* is the mark of the absence of a presence, an always already absent present, of the lack of origin that is the condition of thought and experience."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p. xvii.

6) Ferguson, p.173.

7) 위의 책과 다음을 참조할 것.

씨를 보는 다섯 가지의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sup>8)</sup> 이 시편들을 읽는 동안 우리는 루씨의 정체를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지연 defer될 뿐이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의 존재는 (그녀가 실재했다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러는 사이 루씨의 존재는 어느덧 그녀의 부재(不在)와 이상하게도 얽혀 버리게 된다.<sup>9)</sup> 이러한 처지에 이르면 독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또는 단지 기억(혹은 시)속의 언술(言述)로서만 존재하는 부재(不在)이지만, 우리는 그녀의 〈없음〉을 그저 〈있음〉의 다른 한 증거로서 받아 들이게 되는게 아닌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있음〉이란 많은 경우 〈없음〉으로 인하여 전제되는 것이며, 〈없음〉은 〈있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있음〉과의 차이 difference로 인하여 존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루씨의 〈있음〉과 〈없음〉간의 차이 difference는 우리에게 루씨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오랫동안 지연 defer 시킨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들 속에 나타난 루씨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있음〉 presence과 〈없음〉 absence의 차이의 변별로 인하여 무한히 지연 defer된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것이지, 그녀의 실체 자체의 여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자끄 데리다 Jacques Derrida가 쓰는 용어인 차이 difference와 지연 defer의 합성 개념인 différance(한국말로로는 차연 差延)이라는 개념이 〈루씨의 시편들〉을 읽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몫을 하게 됨을 알게 된다.<sup>10)</sup>

더구나 워즈워스의 시에 있어서 기억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억은 사실상 연상작용 속에 남아 있는 실재(實在)나 사실의 흔적일 뿐으로, 이는 〈있음〉의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억에 의하여 불러 일으켜지는 〈있음〉은 〈있음〉 자체

Tilottama Rajan, "Deconstructing Wordsworth," in Spencer Hall and Jonathan Ramsey, eds., *Approaches to Teaching Wordsworth's Poetry* (N.Y.: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86), p. 159.

8) Ferguson, p. 177.

9) Geoffrey Hartman, "Evening Star and Evening Land," in Richard Machin and Christopher Norris, eds., *Post-Structuralist Readings of English Poetry* (Cambridge Univ. Press, 1987), pp. 273-274.

10) 이 말은 Jacques Derrida가 만든 용어이다. 불어인 différer는 ① "지연하다"는 뜻과 ② "차이를 나타내다"는 두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 동사의 명사형은 différence인데, 이는 위의 ②의 뜻만을 나타내고, ①의 뜻은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Derrida는 이 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différance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지만, 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말이다. différence라는 단어의 마지막 네글자인 -ence를 -ance로 바꾸어 이 두 단어 사이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différance라는 신조어의 존재이유이다. 이런 차이에 의하여, ① 단어란 근본적으로 지시 대상이 있다기 보다는 단어 상호간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는 구조주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② 궁극적으로는 언어는 말소리(voice 또는 speech) 중심이 아니고(logocentric 하지 않고), 오히려 언어의 의미의 차이는 글자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구조주의의 허점을 폭로함으로써 구조주의(언어학)의 근본가정을 뿌리째 흔들고, 또한 구조주의를 해체한다(deconstruct). 즉, différence와 différance는 소리내어 발음할 때는 어느 것인지 구분이 안되지만, 글자로 표기함으로써만 차이가 명확해지므로, 언어가 목소리에 근거해 있다는 가정은 허구임이 들어난다. 이에 대한 Derrida의 언급은 다음을 볼 것. Jacques Derrida, "Différance," in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an Bass (Univ. of Chicago Press, 1982).

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 어느 곳을 봐도 이 경우 <있음>이란 <없음> 속에 나타나는 기억의 연상작용인 것이다. 이 경우 기억이란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어 놓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있음> 자체도 <없음>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기능일 뿐, 어떤 사실을 지시하는 것 *signifié*은 아님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있음>과 <없음>은 기억을 매개항으로 하여 변별되는 차이일 뿐, 실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즉 <있음>과 <없음>은 단지 기억을 매개항으로 한 변별로서 존재하며, <있음> 자체도 어떤 것을 지시한다기보다는 그저 기능일 뿐이라는 사실)은 <루씨 시편들>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음성 *voice*의 억압이라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읽기에서는 독자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목소리(그것이 작가의 목소리거나 또는 작품자체에 유기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는 초월적인 목소리 *transcendental voice* 이거나 간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찾아내어 이 목소리의 실재를 탐색하는 작업에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위즈워스의 <루씨 시편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읽기와는 달리 이러한 목소리를 찾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루씨가 누구인가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목소리 찾기의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마치 바다에 추락한 비행기의 *black box*의 출처가 미궁에 빠져서, 비행기의 추락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가 힘든 경우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목소리가 배제된 텍스트 *text*로서의 시의 중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단서 즉, 목소리가 결여된 텍스트뿐인 시편들은 우리를 더욱 혼란과 미궁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루씨 시편들>에서 침묵 *silence*의 형태로 어디에나 깔려 있다. 그러나 침묵은 언어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소리의 억압 및 상실은 침묵 뒤에 깔린 언어의 원형 *Ur-language*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는 다른 형태일 수가 있다. 데리다의 말을 빌리면, “말이 죽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언어의 지평과 또한 언어의 근원과 같은 것”<sup>11)</sup> 이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또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잠이 나의 영혼을 감쌌네>라는 시에서는 루씨의 <있음>과 <없음>이 단지 반복과 메아리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생명 *cosmic life*의 순환 원리에 되돌아감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위즈워즈 자신이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며 빈 삶의 한계를 뛰어 넘어, 어느 초월의 경지에 도달함을 드러내 보여 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경험은 현실을 뛰어넘어 저 멀리의 어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닌 <바로 여기>임을 보여 주는 데에 그의 인식의 탁월함이 있다. 그는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언자였으며,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이다.<sup>12)</sup>

이러한 의미에서 <루씨 시편들>은 위즈워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1) Derrida, *Of Grammatology*, p.315.

12) Caroline F.E. Spurgeon, *Mysticism in English Literature* (London: Kennikat Press, 1970), p.60.

도 이 시편들을 읽는데 있어 특별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클리언쓰 부룩스의 말은 우리가 〈루씨의 시편들〉을 읽는데 있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루씨 시편들〉은 논리의 연속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독자는 상상의 비약을 해야만 이러한 논리의 불연속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 〈루씨 시편들〉을 읽는데에는 유추를 해야만 완전한 읽음이 가능한데, 이러한 유추는 읽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한 따름이다.

[Lucy poems] reveal gaps in logic that the reader is forced to cross with a leap of imagination—they hint at analogies that cry out to be completed—and yet which can only be completed by the reader himself.<sup>13)</sup>

### 1. 〈있음〉으로서의 〈없음〉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 근심을 경험한 적이 있네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의 경우:

우선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 근심을 경험한 적이 있네〉(이하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로 줄여서 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첫번째 사실은 빛의 의미를 어원으로 갖고 있는 루씨 Lucy가 죽지나 았았나(죽, 빛을 잃지나 았았나)하는 큰 걱정을 이 시의 화자가 경험하는 사실이다.<sup>14)</sup>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근심을 경험한 때는 이미 지나간 때이고, 이 시의 화자(話者)는 지금 단지 이러한 경험의 기억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서술하는 이중적 시각을 이 시는 갖고 있다(그리고, 루씨가 죽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살았었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에서야 분명해 진다). 이 시에서 극명히 나타나는 사실은 이 시 속에서는 살아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그러나, 이미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대상인) 루씨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은 단지 기억일 뿐이고, 그러므로 그녀의 존재는 〈흔적〉일 뿐이다. 화자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근심을 갑자기 경험하게 된 것도 루씨의 〈있음〉이 〈없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였지만, 이 시가 쓰여진 시집에서는 이미 이러한 근심은 쓸데없는 기우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사실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는 이러한 사실 인식이 단지 〈지연〉될 뿐이다.

루씨가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워즈워쓰는 여러가지의 효과를 이 시에서 거두고 있다. 우선 기대되는 효과는, 이 시의 처음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듯이 이 시

13) Cleanth Brooks, *A Shaping Joy: Studies in the Writer's Craft* (London: Methuen, 1971), p. 58.

14) J. Hillis Miller, "On Edge: The Crossways of Contemporary Criticism" in Morris Eaves and Michael Fischer, eds., *Romanticism and Contemporary Criticism* (Cornell Univ. Press, 1986), p. 109.

는 아주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즉, 루씨가 죽지나 않았을까 하는 마음 조이는 상태)이 극적이면 극적일 수록,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때의 낙담은 더욱 더 큰 것이 된다. 또한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루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미쁨으로써, 화자 자신이 그 사실 자체를 가능한 한 늦게 알고 싶어 하는(또는 알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인 측면을 드러내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없음> 즉, 루씨의 죽음을 지연 defer 시킴으로써 루씨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생존과 맞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죽어 있는 그녀가 지연과 기억의 매개로 인하여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곧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이 시에 나오는 루씨는 살아 있는 인물이 아니고, 단지 기억으로 말미암아 생긴 <있음>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만 화자의 기억의 구조물 memory piece일 뿐이다. 이 시 속에서는 단지 화자만이 아득한 추억을 더듬는 환상 여행을 할 뿐이다. 이러한 환상 여행은 기억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마음씨 고운 자연이 베풀어 주는 아주 자애스러운 선물인 꿈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과 꿈 속에서 일으켜지는 죽어 없어진 루씨의 실재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영원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 시에서 주조된 이루는 달의 이미지와 상징에서도 찾아진다. 이시의 화자는 저녁에 나온 달의 달빛을 받으며 루씨에게로 향하여 말을 달리고 있다. 우선 루씨 Lucy는 그 어원을 보면 빛의 뜻을 가진 라틴어의 Lux에서 기원한 말이다. 그리고 달도 해가 없는 밤에 빛을 발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루씨와 달은 둘다 빛이라는 개념을 매개체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예로부터 달과 여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달의 주기(초생달에서 만월 그리고 다시 그믐달로 사그러지는 기간)와 여성의 생리주기 사이에는 신비스러운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달은 여자를 관장하는 주재자로 여겨져왔다.<sup>15)</sup> 달은 더구나 자체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태양의 빛에 의하여 빛을 내기 때문에, 달은 사실상 해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달은 해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해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해는 또한 모든 빛의 근원 origin으로 여겨졌으며, 그러므로 지상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해에게는 생성 소멸의 주기가 없다. 달은 해와는 달리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성하여 소멸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세상의 많은 사물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달이 지는 것으로 루씨의 죽음이 암시되고 있다. 이 경우 달이 지는 것을 루씨의 죽음과 동일시함

15) J.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trans., Jack Sage (Routledge & Kegan Paul, 1967), 2nd ed., p.214.

으로써, 시인은 루씨가 곧 달임을 보여준다.<sup>16)</sup> 그러므로 달의 특성이 곧 그녀의 특성이 되는 셈이다. 즉, 지금 그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부활과 재생을 위한 삶의 휴지(休止)로서, 이는 아주 잠시동안의 삶의 정지일 뿐이다.<sup>17)</sup> 여기서의 루씨의 죽음은 오히려 그녀의 부활과 재생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그녀가 달로 상징되는 우주적 삶의 주기와 합일함을 보여주는 한 양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은 뒤에 오는 다른 시들과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자세히 보게 될 <잠이 나의 영혼을……>과 특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달이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달의 정체를 확정하지 못한다는 형이상학적인 곤경을 야기시킨다. 달 자체가 태양(또는 근원)의 흔적일 뿐이며, 더 나아가서 어느 순간에도 달의 정체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달이 상징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도 있다. 즉, 달의 존재는 어느 순간에는 존재하지만, 이의 존재는 달이 없어진 상태와 또한 다시 돌아난 상태를 동시에 상정(想定)하는 것이며, 달의 존재는 어느 시점에서 달의 모양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달일 경우에는 달의 밝은 반쪽과 더불어 또한 달의 어두운 다른 반쪽을 동시에 공유하는 것이다. 보름 달일 경우에는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반대의 경우도 달 자체가 내포하고 있음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데리다가 흔적을 표시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지운 다음, 이 두 개의 실체, 즉 쓴 것과 지운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하여 삭제의 표시인 X를 씌으로써 ~~흔적~~이라고 쓰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를 흔적에서 같이 보게 된다. 달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면, 달과 동일화가 이루어진 루씨에게도 위에서 보여준 <흔적의 존재와 지워짐>이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 즉, 루씨는 “있음으로서의 없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항상 이미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다 the mark of the absence of a presence, an always already absent present.”<sup>18)</sup>

이러한 <있음>으로서의 <없음>은 달의 상징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미지에서도 나타난다. 그 좋은 예가 <잠>과 <꿈>이다. 이 잠과 꿈은 이 시에서 뿐만 아니라 <루씨 시편들>의 다른 시들에서도 자주 보이는 이미지이다. 특히 잠이란 깨어 있음의 흔적이며, 꿈은 잠 속에서 깨어 있음을 흔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실상 잠과 생식의 의식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이 둘은 서로의 흔적일 따름이다.

루씨가 기억으로 매개된 흔적일 따름이라는 강력한 논거중의 하나는 우리는 이 시에서 그녀의 목소리 voice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루씨 시편들>에 남아 있는 루씨의 <있음>은 글자 그대로 그녀가 종이 위에, 그리고 화자의 기억에 남겨 놓은 흔적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곧 기억의 파편일 뿐이다. 위즈워쓰가 처음에 쓴 이 시의 원문에는 그녀의

16) Hartman, "Evening Star and Evening Land," p. 274.

17) Cirlot, p. 215.

18)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p. xvii.



웃음(즉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의 수정된 확정본에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물론 삭제된 부분을 넣었을 경우, 시의 극적인 요소가 많이 훼손되고, 독자가 느끼는 박진감이 감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워즈워스는 루씨를 철저하게 흔적으로만 남게 해 놓았다. 이시의 삭제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시의 확정된 텍스트로 갖고 있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진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밑에 옮겨 놓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의 청아한 웃음은  
내 귓전에 [아직도] 울려오네.  
내가 그날 밤을 생각하면,  
내 눈은 눈물로 흐려지네

I told her this; her laughter light  
Is ringing in my ears;  
And when I think upon that night  
My eyes are dim with tears.<sup>19)</sup>

물론 삭제된 부분을 다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에 연결시킨다 해도 흔적으로서의 루씨의 실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워즈워스는 루씨의 흔적만을 우리에게 남겨 놓은 셈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루씨의 존재는 시간적인 존재에서 공간적인 존재로서의 흔적으로 남는다.

달에 나는 나의 눈을 고정시켰다  
넓은 평원의 어디에나[떠 있는 달에]

Upon the moon I fixed my eye,  
All over the wide lea. (11. 9-10)

화자는 달을 타고 평원을 가로 질러 가면서 눈은 달에 고정시키고 있다. 그런데, 달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넓고 넓은 평원의 어디에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달 자체는 단지 태양(즉, 근원 또는 중심)의 흔적일 뿐이라는 것을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이 달은 루씨와 동일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 달은 화자가 말달리고 있는 평원을 어디에나 다 비춰주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루씨의 흔적을 평원의 어디에서나 보고 있는 것이 되며, 이는 곧 평원이 루씨의 흔적으로 공간화된 셈이다. 그러므로 루씨는 곧 달빛의 흔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루씨는 평원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녀는 또한 동시에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다 nowhere and everywhere at once.”<sup>20)</sup> 이

19) Ernest de Selincourt, ed., *The Early Letters of William and Dorothy Wordsworth* (Oxford: Clarendon Press, 1935), p.202.

20) Ferguson, p.182.

처럼 루씨는 평원 어디에서나 〈있음〉으로서의 〈없음〉이며, 또한 〈없음〉으로서의 〈있음〉으로 공간화되어 남아있다.

달과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는 화자가 타고 가는 말을 볼 수 있다. 말은 그의 생명력과 관련지어서 강력한 욕망과 본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원초적인 창조와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반면 말은 죽음의 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고대 중국에서는 왕이나 고관이 죽을 때 말을 함께 매장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상기할 것), 말은 또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다.<sup>21)</sup> 그러므로 이 시 전체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흔적을 도처에서 보게 되며, “갑자기, 밝은 달이 졌다 At once, the bright moon dropped”라는 시구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더구나 dropped라는 단어가 풍기는 의미와 발음은 우리를 환상에서 화다닥 깨어나게 하는 효과까지도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단어의 마지막음인 p와 t는 모든 통로가 막히고 생의 끝장에 온 위기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 시의 마지막 단어인 dead에서는 이러한 느낌이 더욱 확고하게 된다.

## 2. 〈있음〉으로서의 〈없음〉과 〈없음〉으로서의 〈있음〉의 차이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았네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와 〈나는 낯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아 다녔네 I Travelled among Unknown Men〉의 경우:

〈있음〉으로서의 〈없음〉과 〈없음〉으로서의 〈있음〉의 차이는 그러나 〈그녀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았네〉(이하 〈그녀는 발길이……〉라고 줄여서 쓰겠음)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내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가? and, oh, The difference to me!〉라는 이 시의 마지막 줄이 보여 주듯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여러 가지의 차이들이 쌓여져서 커다란 충격으로 화자의 의식에 와 닿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difference 들 하나 하나는 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만, 이들이 반복되고, 흔적이 쌓여짐으로써 마지막 줄에서처럼 큰 충격을 이룬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과거의 루씨의 〈있음〉과 지금의 루씨의 〈없음〉의 차이가 시간적인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으로의 차이로 나타난데 있다. 이 시에서 과거의 루씨의 상태는 모두 과거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 그녀는 다브(Dove)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어느 누구의 눈으로부터도 반쯤 가려진 채 살았었다. 그녀를 칭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를 사랑할 사람은 더 더욱 없었다. 그녀의 친구는 하늘과 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샛별과 이끼끼 바위 그리고 이 바위 옆에 홀로 핀 오랑캐 꽃들뿐——이것들이 그녀를 아는 전부였으리라. 이러한 과거시제로 된 그녀에 대한 묘사는 그러나 마지막에서 둘째 줄에서는 갑자기 현재로 바뀐다. 이제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무덤에 있네 But she is in her grave〉라고 과거의 그녀와

21) Cirlot, p.182.

현재의 그녀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제 <루씨는 있기를 그쳤다 Lucy ceased to be>. <있기>를 그친 그녀는 <없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녀의 무덤에 <있음> 뿐이다. 그녀는 단지 시간적으로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변화했을지 모르나, 공간적으로 볼때 그녀는 과거에는 실제로 살아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그녀의 <있음>은 그녀가 무덤에 죽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단지 공간적인 자리바꿈 displacement을 했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전에는 <있음>으로서의 <없음>이었다면 (그녀가 존재했으나 아무도 칭찬해 주거나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그녀는 그와는 반대로 그녀의 <없음>을 슬퍼하고 기억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 <없음>으로서의 <있음>인 것이다. 프랜세스퍼거슨 Frances Ferguson의 말을 빌리면, “[이 시의] 화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하려고 노력하나, 그의 사랑은 단지 <없음>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the speaker is trying to describe an object of love, when that love is compounded of nothing but absence.”<sup>22)</sup> 이 경우 그녀의 <있음>은 그녀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무덤 grave이 그녀의 <없음>을 고정시켜 줌으로써 그녀의 <있음>이 더욱 잘 드러내진다는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

죽고 난 후의 루씨의 <있음>은 그러므로 <없음>의 공간화에 의하여 드러남을 보여준다. 그녀의 죽고 나서의 <있음>은 그녀가 살아 있을 때의 <없음>을 강조하던 상징들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그녀가 살아 있을 때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음>의 존재였다. 이 때 이끼끼 바위와 오랑캐 꽃과 샛별과 하늘은 그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있음>은 <없음>으로서의 <있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죽고 난 후의 그녀의 <없음>으로서의 <있음>은 그녀의 살아 생전에 <없음>을 강조하던 상징들에 의하여 더욱 더 <있음>이 강조된다. 별은 영원한 존재의 상징이다. 그러나 별이 생명없는 영원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면, 하나의 이끼끼 바위 a mossy stone은 생명의 옷을 입은 영원이다. 이러한 영원은 또한 샛별로 나타내지는 순환적인 영원 eternal return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환적인 영원은 오히려 보잘것 없는 오랑캐 꽃으로 더욱 잘 나타내진다. 이끼끼 바위 옆에 피어 있던 조그마한 오랑캐 꽃 하나——이것은 루씨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은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루씨는 이제 죽음의 <없음> 속에서 이러한 순환적인 영원 속에 파묻힘으로써 순환적인 영원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죽음으로써,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오랑캐 꽃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루씨의 <없음>으로서의 <있음>은 <나는 낮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떠돌아 다녔네>라는 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있다. 다른 <루씨 시편들>은 모두 1799년에 쓰여졌던 것에 비하여, <나는 낮 모르는……>은 워즈워스와 그의 여동생 도로씨 Dorothy가 독일에서 귀국한 후인 1801년에 쓰여진 것이다. 독일에 있을 때 워즈워스 남매

22) Ferguson, p.184.

는 깊은 고독과 향수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 나오는 루씨는 영국에 사는 화자가 영국에 살던 루씨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시인태 반하여, <나는 낮 모르는……>은 영국에 살다가 죽은 루씨를 외국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 온 화자가 기억하는 것으로서, 공간의 확대와 시각의 변화로 인해 루씨의 위상이 또한 변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서의 루씨는 죽고 나서 오랑캐 뜻의 은유로 바뀐데 비하여, <나는 낮 모르는……>에서의 루씨는 영국 자체가 돼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낮 모르는……>은 루씨에 대한 사랑을 읊은 시라기보다는, 루씨를 품고 있는 영국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는 시로서, 이 시에서는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영국은 루씨를 전제로 한 영국이다. 루씨를 영국과는 떼어서 별개로 생각할 수 없듯이, 또한 루씨 없는 영국은 영국이 아니다. 루씨의 <있음>은 그러므로 영국이라는 전 국토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루씨를 매개로 한 영국이 그대(thee)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퍼거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시인]는 [루씨가 사라지고 없는 지금] 그의 가고 없어진 사랑을 찾는 길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루씨는 죽기 전에도 자연의 살아있는 영혼이었지만, 이제 죽고 난 지금에도 자연의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다. ……자연은 이제는 루씨의 없음을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돌연 루씨 대신에 그가 사랑하는 것[사람]이 된 것이다.<sup>23)</sup>

영국은 루씨가 뛰놀던 숲속의 나무 그늘이었으며, 또한 그녀가 죽기 전에 눈을 주었던 푸른 초원이었다.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 나오는 루씨는 하늘과 별과 셋별에 대비되어 축소된 존재였으나, 축소됐기 때문에 그녀가 죽고 나서는 이들과 동일시되어 확대되었다. 같은 이치로 <나는 낮 모르는……>에 나오는 루씨도 축소됨으로써 확산된 예이다.

그대[영국]의 산천에서 나는  
내가 갖고자 하는 나의 즐거움을 느꼈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녀는  
영국 가정의 벽난로 곁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Among thy mountains did I feel  
The joy of my desire;  
And she'll cherish'd turned her wheel  
Beside an English fire.

영국의 산천은 곧 루씨와 대비되지만, 그러나 이들은 루씨가 죽고 난 후 루씨 자신이 된다. 영국 가정의 벽난로 곁에서 물레를 돌리던 체구가 작은 그녀는 영국의 산천이 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루씨도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 나오는 루씨처럼 죽고 나서 자연의 영원한 순환 자체가 됐다. 그녀는 살았을 때에도 순환의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이제

23) Ferguson, pp.186-187.

죽고난 루씨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징되는 하루의 순환뿐만 아니라 푸른 초원으로 상징되는 계절의 순환이 된 것이다. 그녀의 작은 체구를 담아 <없음>을 있게 한 무덤은, 이 시에서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 대신 영국 전체가 그녀의 <없음>을 있게 하는 확대된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의 눈에 반쯤 가려졌던)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 나오는 루씨는 <나는 낯모르는……>에서는 푸른 평원을 죽기 전에 당당히 훑어보는(survey) 사람이 됐다. 영국의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루씨의 존재, 이는 그녀가 죽고 <없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있음>이다. 이 시의 화자는 그러므로 낯선 외국 땅에서 낯모르는 사람들 틈에 떠돌아 다녔지만, 그에게는 영국과 루씨가 마음속에 <있음>으로서 해서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없음>의 루씨는 살아 있었다. 이제 <없음>의 루씨는 <있음>의 영국과 자연이 되며 봄이면 다시 푸르러지는 평원이 되어 다시 살아 <있음>이 되었다. 그녀가 살아 <있을>때 휘날던 숲속의 그늘은 아침이면 드러나 보이고, 밤이면 다시 숨겨지면서, 그러나 영국이 “그대”(thou)가 된 지금, 루씨를 “그대”(thou)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은 곧 루씨인가? 이에 대한 답은 지연되었으며(delayed), 이에 대한 지연된 답을 <삼년 동안 그녀는 자랐다 Three Years She Grew>에서 보기로 하자.

### 3. <있음>으로서의 <없음>인 자연으로의 되돌아감

<삼년 동안 그녀는 자랐다. Three Years She Grew>의 경우 :

지금까지 보아온 <루씨 시편들>에서는 루씨의 존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루씨는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 단지 화자의 기억을 통하여 그녀의 존재가 반추되어졌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루씨의 존재는 <있음>과 <없음>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반복 repetition함으로써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삼년 동안……>에서는 <루씨 시편들>의 어느 시에서 보다는 그녀의 <없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다. 더구나 이 시의 진행은 <루씨 시편들>의 다른 어느 시에서 보다는 아주 단호하게 시작됨으로써, 다른 시들과 또한 구별된다.

삼년 동안 그녀는 햇빛을 받고 소나기를 맞으며 자랐다.

그런 다음에 자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보다 더 고운 꽃이 이 세상에 피어난 적이 없었다.

이 애를 내게 배려 올테다.

그애를 나의 것으로 삼겠으며,

나는 그애를 나의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다.”

Three years she grew in sun and shower,

Then Nature said, “A lovelier flower

On earth was never sown;

This Child I to myself will take;

She shall be mine, and I will make

## A Lady of my own. (11. 1-6)

우선 이 시가 다른 시편들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 시에서는 자연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 voice로 말한다는 점이다. 〈루씨 시편들〉의 어느 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자신의 목소리 voice를 가지지 않았던——그랬기 때문에 단지 〈없음〉으로서만 〈있음〉이었던——루씨와도 자연은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워즈워스는 지금까지 〈루씨 시편들〉에서 써 오던 시형식까지도 변화시켜서 쓰고 있다. 〈루씨 시편들〉의 다른 모든 시들에서는 하나의 연 stanza은 네 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한 연이 여섯 줄로 구성돼 있다. 〈루씨 시편들〉의 다른 시들은 한 연에 네 줄씩의 로맨스 romance였던 것을 이처럼 한 연에 여섯 줄씩의 로맨스로 시의 형식을 일시에 바꿈으로써 지금까지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맨스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무산되고 만 것이다. 예를 들면, 〈갑자기 주체하지 못 할……〉에서 워즈워스는 한 연을 네 줄로 구성함으로써, 이 시에서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로맨스의 기사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준다.<sup>24)</sup> 그러나, 〈삼년 동안……〉에서는 이러한 독자의 기대를 시의 형식을 바꿈으로써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sup>25)</sup> 이러한 시의 형식의 갑작스런 변화는 독자의 로맨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없앨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화자로서의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만다. 따라서 이제껏 보아온 다른 시편들에서 시인이 유지하던 목소리의 중심 the center of speech는 이제 없어지게 된 셈이다.<sup>26)</sup> 특히 이전의 시에서는 루씨 자신이 목소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없음〉으로서의 〈있음〉은 시인의 목소리에 의하여 어느 정도 보완 되었지만, 이제는 시인의 목소리마저도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이 자리를 자연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차지하게 된다.

이같이 자연이 시인의 목소리를 빼앗고 자연 스스로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은 자연이 루씨의 목소리를 빼앗음으로써만 가능해진다. 루씨는 자연에 의하여 아주 강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녀의 목소리가 강탈당한다. 자연은 아이들이 자기의 말을 갖 시작하는 나이인 세살 때에, 루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내 보지도 못하고 자연에 의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강탈당함으로써 곧 그녀 자신의 존재마저도 유린당하고 만다.<sup>27)</sup> 더구나 여기에 나타난 더 큰 아이러니는 자연은 그대신 그녀에게 생명의 생동력과 자연스러움을 약속한다.

그녀를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초원을 가로지르고  
산으로 뛰어다니는  
새끼사슴처럼 즐겁게 뛰놀게 하리라.

24) Ferguson, p.181.

25) Ferguson, p.190.

26) Ferguson, p.190.

27) Hartman, "Evening Star and Evening Land," p.276.

She shall be sportive as the fawn  
That wild with glee across the lawn  
Or up the mountain springs.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약속은 단지 빈 약속에 지나지 않을 뿐, 그녀는 자연이 말하기를 그  
치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만다.

이렇게 자연은 말했다—그러자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나의 루씨의 삶은 끝이 났는가!

Thus Nature Spake—the work was done—

How soon my Lucy's race was run!

자연은 루씨에게는 아주 사려깊은 보호자이다. 아니, 그보다는 루씨를 너무나 위하기 때  
문에 그녀가 하나의 여성으로 피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삶을 앗아가 버리는 너무나도 잔인  
한 보호자이다. 자연은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되는 측면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  
가 받는 인상은 자연은 부드럽고 자애스럽기보다는 잔인하고 전체적인 폭군으로 보인다.  
그는 루씨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녀에게는 아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자신의 자의대로  
일방적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너무나 잔인한 존재이다. 즉, 자연은 어린애를 성적으로 폭행  
한다.<sup>28)</sup>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루씨는 아주 어린 때에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

<루씨 시편들>의 어느 곳에서도 루씨가 구체적으로 그려진 곳은 없다. 물론 그녀의 <있  
음>은 <없음>으로서의 <있음>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워즈워스의 시에는 일  
반적으로 처녀가 아름답거나 성적으로 묘사돼 있지 않다는 경향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대  
단히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상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루씨가 세살 적에 죽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화자는 루씨가 여성임을 부정한다. 이는 자  
연의 루씨에 대한 대단한 잔혹행위이다. 자연이 루씨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충  
격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성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 우리에게서 더 큰 충격인 것이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양성 중의 하나를 택하여  
산다는데에 생존 양식의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루씨가 하나의 여성으로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한다. 따지고 보면  
루씨의 안위를 진적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은 오히려 루씨의 생존권마저도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 알기 시작하는 때인 세살의 나이에 박탈해버린 셈이다.

자연은 루씨를 무한히 걱정해주는 자애로운 측면과 또한 그녀를 세살의 아주 어린 나이  
에 앗아가는 잔인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은 사실  
은 하나의 사실의 양가적인 ambivalent 측면일 뿐이다.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은 이 시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적인 틀이기도 하다. 루씨는 햇빛을 받고, 또한 소나기 속에 자라기도

28) Ferguson, p.188.

한다. 자연은 그녀가 규율 law이며 또한 충동 impulse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충동하고 kindle 억제하는 restrain 힘을 갖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의 한 쪽은 다른 한 쪽을 보완하는 측면일 뿐, 반대되는 측면은 아니다. 마치 <있음>이 <없음>의 반대되고 상충되는 측면이 아니고, 하나는 다른 하나와 서로 연결된 것과 같다. 이러한 서로 보완적인 관계란 우주적인 질서의 조화로움을 이루는 근간으로서, 이는 곧 생명의 질서이며, 진진의 법칙이기도 하다. 루씨는 자연에 의하여 결국에는 이러한 질서 속으로 환원되어, 이러한 질서의 근본원리가 된 셈이다.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살았네>와 <나는 낮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떠돌아 다녔네>의 두 시들과 <삼년 동안 그녀는 자랐다>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전자의 두 시와 후자의 시 사이에 나타나는 화자와 자연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의 두 시에서는 자연과 화자는 적대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자연은 루씨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확대된 공간이었다. 여기에 나타나는 자연은 엄격하고 독단적인 성격의 부성적(父性的)인 남성이기보다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모성적인 여성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안겨 있는 루씨를 보게 되고, 자연은 곧 루씨의 확산이다. 그러나, <삼년 동안……>에 와서는 이러한 화자와 자연과의 관계는 갑작스런 변화를 맞는다.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잔인하며 이기적인 부성적인 자연이다. 더구나 자연은 루씨에게 근친상간적인 폭력을 거둬낌없이 자행하는 가공할 힘을 휘두르는 자연이다. 화자는 <루씨 시편들>의 처음인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에서는 로맨스에 나오는 기사로서 루씨를 찾아나섰다. 그러나 <삼년 동안……>에 와서 화자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자애스럽고 포용성이 있는 존재로만 느껴졌던 자연은 폭군의 자연으로 그의 모습을 표변하고 만다(이러한 자연의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은 워즈워스의 다른 시들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이제 화자가 찾아나선 루씨는 자연의 폭압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기도 전에 죽게 되며, 화자는 단지 자연의 이러한 폭거를 봐야만 하는 방관자의 위치에 머물게 된다. 이 경우, 자연의 이러한 폭거는 루씨와의 강제 결혼인 셈이며, 자연과 화자와의 관계는 적대관계로 변한다. 즉, 자연과 루씨의 결혼은 새 생활의 출발로서의 축복받을 경사가 아니고, 강자인 자연이 약자인 루씨라는 여성을(물론 아직도 여성은 아니다) 강탈하는 장례식인 셈이다.<sup>29)</sup> 그러므로 <삼년 동안……>은 결혼 축가가 아닌, 루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인 셈이다.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찬 장송곡이 울려 나오는 가운데 루씨는 자연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그녀는 죽었네, 그리고 내게  
이 히어쓰 던힌 별판, 이 고요, 그리고 조용한 풍경을 남겨 놓고 갔네.  
과거만이 있고,  
결코 미래는 없는 추억만을 남기고.

29) Ferguson, p.188.



She died, and left to me  
 This heath, this calm, and quiet scene:  
 The memory of what has been,  
 And never more will be. (11. 39-42)

4. <보이는 것 **seeming**>과 <실제로 있는것 **being**>, 그리고 <있음 **presence**>과 <없음 **absence**>의 합일로서의 우주적 생명력 **cosmic life**

<잠이 나의 영혼을 감쌌네>의 경우 :

<삼년 동안……>에서 본 것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루씨는 이제 <과거만이 있고, 결코 미래는 없는 추억만을 남기고> 영원히 떠나간 것일까? <루씨 시편들>의 화자는 과거의 빈 껍데기인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 가야만 하는 것일까? <잠이 나의 영혼을 감쌌네>는 루씨 시편들 중에서 감정이 극도로 절제된 언어로 쓰인 가장 짧은 시이다. 특히 이러한 절제된 언어는 <삼년 동안……>에서 워즈워스가 보여준 해픈 언어의 사용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삼년 동안……>에서 워즈워스는 그의 참담한 절망감을 말을 마구 험하게 씌으로써 발산하기라도 하려는듯 말을 낭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잠이 나의……>에서 워즈워스는 한 연에 네 줄씩 두개의 연단을 써서 그의 허뜨리진 경서를 철저한 질서속에 가두어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잠이…… A slumber…>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함으로써 현실원리로 이러한 산만한 감정을 통제하기 보다는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허뜨리진 감정을 질서지우려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더구나 이 시의 첫째 줄 마지막 단어인 <감쌌네 seal>라는 단어는 이러한 틀이 잡히지 않은 감정에 질서의 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산만하고 혼돈스러운 감정에 질서의 통제를 가한다. 또한 이 단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견잡을 수 없이 분출되는 감정을 하나의 해결점으로 몰아간다는 측면도 있다.<sup>30)</sup> 그러므로 이 시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이 시에 나타나 있는 모순과 대립의 구조를 보게 되고, 이 모순과 대립의 구조는 서로를 대비시키면서 동시에 어떤 통합의 질서로 묶여짐을 본다. <루씨 시편들> 중에서 이러한 모순과 통합이 가장 잘 질서지워진 시가 바로 이 <잠이 나의……>이다. 우리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시에 나타난 모순과 통합의 역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J. Hillis Miller의 지적대로 이 시에서 우리는 놀라운 정도로 많은 수의 대립항들을 찾아낼 수 있다.<sup>31)</sup> 이 많은 대립항들의 예를 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는 <깨어있음 waking>의 대립항인 <잠 slumber>을 볼 수 있고, 남성에 대립되는 여성을 볼 수 있다. 그외에도 <열려진 것>에 대한 <감싸는 것>, <실제로 있는 것 being>에 대비된 <보이는 것 seeming>, <아

30) Geoffrey H. Hartman, *Saving the Text: Literature/Derrida/Philosophy* (The Johns Hopkins Univ., 1981), p.148.

31) J. Hillis Miller, "On Edge," p.102.

는 것)에 반대되는 <알지 못함>, <현재>에 대해 <과거>, <밖>에 대한 <안>, <어둠>에 대한 <밝음>, <의식>으로서의 <주체>인 <나>와 이에 대비되는 <사물>로서의 객체인 <돌>과 <나무>의 자연계, 만져서 느끼는 <감각>과 정서나 두려움과 같은 내부적인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인간적이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 루씨를 어떤 <존재 thing>라고 부를 때의 <존재>의 의미와 외계 사물을 <존재 thing>라고 부를 때의 <존재>, 시간적인 단위로의 <날짜 days>와 대비된 <해 years>, <보는 것 seeing>에 대비되는 <듣는 것 hearing>, 외부에서 오는 <힘 force>과 대비되는 내부의 <움직임 motion>, 외부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대비된 내부적인 힘에 의해 움직이는 추진, 딸이나 여동기간에 대비되는 어머니, 집안에 본래부터 있던 여자에 대비하여 결혼이나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져 외부에서 집안으로 들어 오게 된 여자(즉, 어머니, 여동기간, 또는 딸에 대비되는 정부(情婦)나 아내), 사회제도적으로 용납되는 성적인 감정과 대비되는 근친상간적인 감정, 그리고 죽음과 대비되는 삶 등 대단히 많은 대립항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시에 나타난 대립항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루씨 시편들>의 다른 시들에서 보아온 대립항들의 총결집인 셈이다.

이러한 대립항들은 개개의 요소로 뿐만 아니라, 이 시의 구조 자체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큰 단위로는 첫째 연과 둘째 연은 큰 대립항이다. 이 두 연 사이에 휴지물 두고 각각 과거와 현재, 깨달지 못함과 깨달음, 삶과 죽음이 대립되어 있다.<sup>32)</sup> 더구나 abab, cdcd의 각운을 가진 첫째 연과 둘째 연은 각각 첫째 줄과 둘째 줄이 대립항을 이루고, 또한 첫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이 대칭을 이루며, 첫째 줄과 셋째 줄, 둘째 줄과 넷째 줄이 짝을 이루어 서로 대칭된다.

이 시에 나타난 이러한 대립항들은 그저 무의미한 대립항들의 나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항들의 배열에는 워즈워스의 특유의 시각이 밑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워즈워스의 독특한 시각에 대하여 배려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이 시에서 혼란과 모호함만을 경험하게 된다. 우선 이 시를 읽음에 있어 이러한 대립항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읽음>을 생각해 보자.<sup>33)</sup> 한가지 <읽음>으로 우리는 이 시가 죽음의 공포를 나타내 주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 시의 첫째 연은 과거의 시제로 쓰여졌으며, 둘째 연은 현재의 시제로 쓰여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첫째 연은 그러므로 이시의 화자의 과거의 경험을 묘사한다. 과거에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침범당하지 않으리라는, 그래서 죽음에서까지도 초연하리라는 꿈결같은 환상 속에서 희열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죽어서 차디찬 땅에 묻혀 돌과 나무처럼 되어 버렸다. 화자는 그의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된 지금 커다란 죽음의

32) Miller, "On Edge," p.103.

33) Stephen Prickett, *Coleridge and Wordsworth: the Poetry of Growth* (Cambridge Univ. Press, 1970), p.126.

공포를 느낀다.

또 하나의 다른 <읽기> 방법은 이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위의 <읽기>에서와는 반대로 첫번째 연은 화자의 연인이 죽고 난후에 그가 다다른 깨달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첫연과 두번째연은 루씨의 생전과 사후의 비교이기 보다는 화자가 그녀의 사후에 갖게된 깨달음을 보여준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첫째 연에서는 죽은 루씨는 세상의 변화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 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아무 것도 아닌 무(無)의 세계에 돌아간 것이 아니다. 둘째 연에서 그녀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삶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의 합일은 그녀에게 침묵속에서 영원히 사는 계기를 마련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녀가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위에서 본 두가지 읽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가? 스티븐 프리케트 Stephen Prickett의 의견에 따르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읽기에는) 분명히 상충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읽는 데에 있어서 전자의 읽는 방법이 후자의 읽는 방법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sup>34)</sup> 오히려 이 두 가지의 다른 읽는 법은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 간의 상충 속에 각기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워즈워쓰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고, 신비주의자라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신비주의이며, 그의 이러한 면이 이 시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유한한 세상이 초월적인 세계로 무한히 열려져 나가고 있음을 신비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sup>35)</sup> 그러므로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단선적(單線的)이고 일회적(一回的)이 아니라, 다선적(多線的)이고 여러가지 다른 의미의 층으로 쌓여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선적인 의미의 층들은 서로 상충되는 대립항들이 동시에 공존 copresence 함으로써 가능하며, 또한 더욱 보강된다. 다의적이고 다층적인 의미의 겹들은 하나의 단어가 갖는 많은 다른 의미의 겹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미지리, 상징 등 여러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단어 하나도 워즈워쓰에게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의미를 공유(共有)하는 장(場)의 역활을 한다. 그러므로 “각개의 단어는 그 자체로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머무는 곳이 된다.”<sup>36)</sup> 이 경우 상충되는 의미는 같은 단어 속에서 “차이의 공존 copresence of difference”을 유지하는 셈이다.<sup>37)</sup> 우선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자.

그녀[루씨]는 세월을 간직하지 못하는

34) Prickett, p. 126.

35) Spurgeon, p. 67.

36) Miller, “On Edge,” p. 110.

37) Miller, “On Edge,” p. 108.

물체처럼 보였다

She seemed a thing that could not feel  
The touch of earthly years.

여기에서 화자는 루씨를 <물건 thing>에 견주면서, 루씨는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는 아주 엉뚱하게 들린다. 루씨가 <물건>이라니?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물건(thing)이라고 한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이데거 Heidegger에 의하면, 우리는 보통으로 사람을 얘기할때 <물건>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sup>38)</sup> 단지 어린 소녀가 자기의 나이에 비하여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을 할 때 “어린 것 a young thing”이라고 부른다. <물건>이라는 말은 돌이나 흙덩이 또는 나무 조각을 말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그렇다면 워즈워스가 루씨를 가리켜서 “물건”이라고 한 말은 뒤에 나오는 “바위와 돌과 나무 rocks, and stones, and trees”와같은 의미로 쓰인 것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물건 thing”이라는 말에서 칸트가 말한 “물자체(物自體) Ding-an-sich (thing-in-itself)”라는 개념을 연상하게 된다. 물건이란 그러므로 아무 가치도 없는 죽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감각으로 느껴지는 관념의 실체일 수도 있으며, 또한 바위나 돌과 나무와 같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워즈워스의 시에는 바위와 돌과 나무가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한다. 이 시에서도 바위와 돌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는 <그녀는 사람의 발길이……>에 나오는 오랑캐 꽃과 비교된다. 오랑캐 꽃은 세월에 따라 피고지는 연약한 꽃의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바위와 돌은 그 반대로 항구성과 견고성을 상징한다. 이 중 바위와 돌은 아무 생명도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융 Jung에 의하면 자연적은 정령이나 신이 사는 곳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돌은 원시 사회에서는 비석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쓰여왔다.<sup>39)</sup> 인간은 또한 아주 옛날부터 돌을 수집해왔다. 이는 돌에게는 신비로운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종교적으로 숭앙됐기 때문이다.<sup>40)</sup> 또한 바위나 돌은 침묵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은 신비의 침묵으로서 오히려 우리에게 본질적인 존재 essential being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sup>41)</sup> 이처럼 “워즈워스에게 돌은 무어라고 분명히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떤 유기적인 실존으로 생동하고 살아 있는 것으로 자주 느껴졌다……이처럼 살아 있는 돌은 워즈워스 자신의 영혼과 그의 깊숙한 곳에 내재

38)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ed., David Farrell Krell (N.Y.: Harper and Row, 1977), p.152.

39) Carl G. Jung, et al., *Man and His Symbols* (N.Y.: Dell, 1964), p.258.

40) Jung, p.221.

41) Martin Heidegger, *On the Way to Language*, trans., Peter D. Hertz (N.Y.: Harper and Row, 1971), p.166.

(內在)하는 존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다.”<sup>42)</sup> 이처럼 돌과 바위는 항구성과 견고함을 나타내고 견실성을 드러내주는 신의 거쳐이며 또한 인간의 생명의 연원을 상징한다.<sup>43)</sup>

워즈워쓰의 시에는 또한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대개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수액이 다 빠진 돌과 같은 나무 등결인 경우가 많다. 또한 나무는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산이나 산에 있는 바위와 자주 연관시켜서 생각되었다.<sup>44)</sup> 나무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생성하여 겨울에 잎이 졌다가 봄에 다시 되 살아나므로 생성과 재생을 상징하며, 끝없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주적인 생명력을 나타낸다.<sup>45)</sup> 이처럼 이 시에 나타난 바위와 돌(과 나무)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고, 생명이 없으면서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물건이며 또한 본질 essential being이기도 하다. 이 물건들 안에는 서로 상충되는 본성이 공존해 있으며 워즈워쓰에게는 루씨 또한 이와같이 항구적이며 신비적인 생명력으로 가득찬 “어떤 것 a thing”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우리의 주의물 끄는 단어로는 “일상의 주기 diurnal course”라고 했을 때의 diurnal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이 시의 클라이맥스 climax에 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시의 유연한 흐름을 막는다. 즉, 이 시에서 쓰인 대부분의 단어들은 영어의 토속적인 어휘들로서 단음절어들이며, 또한 강세가 앞에 오는 단어들이었으므로 장중미가 길여된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이 diurnal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시의 흐름에 의식적인 변화를 준다. 이 단어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음으로써, 지금까지의 단조로운 시의 흐름을 막고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sup>46)</sup> 바위와 돌과 나무나 마찬가지로 루씨는 우주의 웅장한 순환의 일부가 돼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은 루씨는 이제 우주에로 환원함으로써 우주적인 장중한 생명을 얻었다는 역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역설 뒤에는 또한 다른 아이러니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즉, diurnal에서 우리는 죽는다는 의미의 die와 또한 유골을 담은 그릇인 urn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을 봄으로써 이 단어의 밑에는 장례의 이미지리가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sup>47)</sup> 또한 course라는 단어에서도 시체라는 의미를 가진 corpse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우주의 일상적인 주기와 하나가 된 루씨에게서 우리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이미 <삼년 동안……>에서 본 바가 있다.

이 시에 와서 루씨의 인간적인 실체는 완전히 없어지고,<sup>48)</sup> 단지 기억의 반복에 의하여서

42) J. Hillis Miller, “The Stone and the Shell: The Problem of Poetic Form in Wordsworth’s Dream of the Arab” in Robert Young, ed., *Untying the Text: A Post-Structuralist Read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1), p.247.

43) Cirlot, p.274.

44) Cirlot, p.349.

45) Cirlot, p.347.

46) Geoffrey Durrant, *Wordsworth and the Great System: A Study of Wordsworth’s Poetic Universe* (Cambridge Univ. Press, 1970), p.169.

47) Imre Salusinszky, *Criticism in Society* (N.Y. and London: Methuen, 1987), p.77.

48) Ferguson, p.192.

만 그녀의 존재가 죽음과 변별 difference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변별 자체도 단지 잠 속에서  
 기억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와 죽음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  
 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녀의 <있음>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현전(現前)으로서의  
 있음이 아니고, 과거의 <있음>의 결과 effect로서의 <있음>이고, 차연 différance으로서의  
 <있음>일 뿐이다.<sup>49)</sup> 다른 <루씨 시편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루씨는 이제는 흔적만의  
 존재로만 남아있다.

이제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기운도 없네.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네.

No motion has she now, no force;

She neither hears nor sees.

루씨는 우리가 <볼 수 있던 범주> the category of seeing에서 이제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  
 는> seeming 상태로만 남아, 단지 <있음>의 흔적인 <없음>으로만 존재한다.<sup>50)</sup> 그녀는 이제  
 바위와 돌과 나무처럼 목소리 voice마저도 없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지적에 의하면 목소리  
 가 없다고 해서 침묵이 죽음의 침묵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침묵이란 모든 담론이 끝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모든 담론의 시원(始原)이기도 하다”<sup>51)</sup>고 말한 하이데거나 “발  
 화의 죽음은 그러므로 언어의 지평이며, 또한 시초이기도 하다”<sup>52)</sup>라고 말한 데리다의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침묵이란 그의 발화(發話)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제 루씨는 인간의 발화의 시원으로 그리고 존재의 모태로서 침묵 속에 존재하게 된 셈이  
 다. 그녀는 침묵하는 영원과 합일하게 된 것이다.

낭만시인들이 소원한 바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원애로의 회귀였다.<sup>53)</sup> 물론 워즈워스  
 도 이러한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다. 루씨는 그러므로 워즈워스의 영원애로의 회귀영원을  
 실현해 준 셈이다. 그러면 루씨는 어떻게 하여 영원애로 회귀하게 된 것인가? 여기에서 우  
 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많은 다른 시에서나 마찬가지로 이시  
 의 마지막 두 줄에서 우리는 시간이 공간화됨을 보게 된다. 즉, 루씨는 죽음으로써 지구의  
 순환운동 속으로 회귀하게 된다.<sup>54)</sup> 이는 곧 루씨의 유한적인 삶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순환의 생명 속으로 회귀하게 된 것을 보여 준다. 그녀는 이제 바위와 돌과 나무

49) Jacques Derrida, *Speech and Phenomenon*, trans. David B. Allison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73), p.147.

50) Ferguson, p.191.

51) Bernard P. Dauenhauer, *Silence: The Phenomenon and Its Ontological Significance* (Indiana Univ. Press, 1980), pp.131-132.

52) Derrida, *Of Grammatology*, p.315.

53) J.R. Watson,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London: Longman, 1985), p.250.

54) Miller, "On Edge," p.108.

와 하나가 되어 이들의 항구성과 생명의 순환(특히 나무의 경우)을 자신의 것으로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상의 작은 순환은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의 순환운동 속으로 또한 환원되어 끝없는 생명의 순환을 계속한다. 루씨의 죽음이란 그러므로 자기 본래의 고향인 자연과 우주에로의 회귀이며,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계기를 얻은 셈이다. 이제 루씨는 <없음>으로서 <있음>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있음>은 또한 <없음>이므로 그녀는 <있음/없음>인 죽음 속에서 <있음>을 얻게 된 셈이다. 루씨의 죽음은 그러므로 앞으로 닥쳐올 어떤 미래에 있어서의 현재도 아니고 또한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현재도 아니다. 그녀의 죽음은 흔적으로서의 <있음>이지만, 이는 또한 좀 더 높고, 다른 차원의 발화(發話)로서 <없음>으로서의 <있음>이기도 하고,<sup>55)</sup> <있음>으로서의 <없음>이기도 하지만, 이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닌 이 둘이면서 동시에 이 둘의 합일인 셈이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워즈워스의 <루씨 시편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으면서 우리는 다음 몇가지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시편들은 루씨에 대해 쓰여진 시들이지만, 어떤 하나의 시가 이 시편들의 처음이고, 또 어떤 시에서 이 시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들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순환의 마지막은 또한 순환의 시작”이라는 점이다.<sup>56)</sup> 예를 들면, 위에서 우리는 <잠자기 주체하지 못할……>을 이 시편들의 처음에서 살펴보고, <잠이 나의 영혼을……>을 마지막으로 살펴 보았으나, 이는 어떤 순서가 이 시편들에 있어서가 아니고, 이는 순전히 편의상의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 시편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루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느 한 편의 시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니고, 모든 시편들에 이 주제가 밀에 깔려 있다. <잠자기 주체하지 못할……>에 나타난 루씨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잠이 나의……>를 우선 읽고 난 후에 역순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처럼 이 시편들은 순환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루씨의 죽음은 이 시편들의 각각에서 계속 지연 delay 되고 변별적으로 나타나므로, 어떤 시가 처음이고, 어떤 시가 마지막이 아니고, 서로 서로가 고리처럼 연결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편들에서는 루씨가 결국에는 처음부터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시편들에서는 초월적인 지시대상 transcendental signified인 루씨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 루씨의 목소리 voice와 <있음>은 단지 기억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변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루씨의 실제 자체도

55) Derrida, *Of Grammatology*, p. 315.

56) Ferguson, pp. 180-181.

전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들에 나오는 다른 사물들도 마찬가지로 존재의 견고함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루씨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됐으며 (<갑자기 주체 못할……>의 초록에서는 루씨의 목소리가 나타나긴 했으나, 이 시의 마지막 확정본에서는 없어졌다), 화자(또는 시인)의 목소리도 자연의 억압에 의하여 결국 없어지고 만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목소리에 기초한 <있음의 형이상학> metaphysics of presence<sup>57)</sup>은 허구임이 드러나며,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조각난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사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sup>58)</sup>

위와 같이 <루씨 시편들>을 읽는 것은 그러나 이 시편들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읽는 것은 단지 이 시들에 나타난 어느 한 변만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특히 <잠이 나의 영혼을……>에 와서는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루씨는 사실은 우주적인 질서와 생명과 합일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들은 <없음>을 드러내는 끊임없는 메아리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없음> 속에서 의미를 있게 하는 루씨의 <있음>에의 귀환을 보여주는 과정인 셈이다. 즉, 위즈워쓰의 위대성은 <있음>의 부정(否定)인 <없음>을 인정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이들은 실상은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57) Terence Hawkes, *Structuralism and Semiotics* (Univ. of Cal. Press, 1977), p.145.

58) Frederic Jameson, *The Prison-House of Language: A Critical Account of Structuralism and Russian Formalism* (Princeton Univ. Press, 1972), pp.145-6.



**A Reading of Wordsworth's "Lucy Poems": Presence as  
Absence and Death as Presence/Absence**

**Chong-Ho Lee**

In the cannon of Wordsworth's poetry, "Lucy Poems" take a very interesting place in their theme. All of the five poems except "I Travelled Among Unknown Men" were written in 1799, while Wordsworth and his sister, Dorothy, were in Germany and homesick. There has been diligent speculation about the identity of Lucy, but it remains speculation. H.M. Margoloth, for instance, speculates that Lucy is Margaret (Peggy) Hutchinson, sister of Mary and Sara Hutchinson. His theory, nonetheless, remains one of the most probable speculation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most here is that these poems are a series of love poems addressed to a dead girl. Because of this, these poems show the narrator's desperate effort to resurrect Lucy in his memory. Since she is dead and gone now, he heavily relies on his memory to do this job. In the process Lucy's presence as a living person is mediated through the narrator's memory. Lucy's presence, therefore, turns out to be hollow and empty in reality, and is preserved in memory only. She is preserved as a living person in these poems and the narrator's mind, but her presence is no more than an epitaph on her tombstone. In this sense, her presence is just a trace of her presence. We can also say that her presence is a variation on her absence, deferred and repeated in the narrator's memory and preserved in the poems only.

In "A Slumber Did My Spirit Seal," however, a dramatic turn of event takes place: her absence takes on life through her union with the cosmic life of the universe. She has been absorbed into the cosmic cycle of the universe by becoming one with "rocks, and stones, and trees." Through her death she becomes alive. It is really paradoxical that she takes on the permanent aspect of the cosmic cycle and lives on as an absent/present person.